

2013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대학		학 과 (학부 · 계열)		수험 번호		성명	
----	--	------------------	--	----------	--	----	--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

-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 답안지의 수험번호 및 인적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수정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써야 합니다.(숫자나 수식, 표 등은 예외)
-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항별로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2013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 2차
논술 문제지 (인문계열 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상주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첫 인상주의전이 열린 1874년 당시의 주류 미술인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의 작품 하나와 첫 인상주의전에 출품된 작품 하나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윌리엄 부그로의 <님프와 사티로스>,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점의 작품은 동일 지역인 파리에서, 같은 시대에 제작된 것이다.

윌리엄 부그로의 <님프와 사티로스>는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그림들은 모두 종교·역사·신화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통해 윤리와 지혜를 가르치려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 그것은 화가들이 흔히 맞닥뜨리고, 또 알고 있는 풍경이다. 거기에는 이야기를 통한 교육이란 없으며 단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한순간의 풍경이 있을 뿐이다. 바로 이러한 역사와 교훈의 부재가 당대의 미술 애호가와 교육자와 비평가를 그토록 분노케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인상주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프랑스에는 풍경화란 따로 없었다. 전통적인 미술에서 풍경은 주제를 돕는 이야기 서술의 배경으로 나타날 뿐이다. 또한 신고전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발로 나타난 낭만주의에서도 풍경은 구름을 뚫고 신비하게 쏟아지는 빛과 그 아래에 있는 광야라든지, 매우 극적이고 뭔가 일상과는 다른 암시를 지녀야 했다. 하지만 인상주의의 그림에서는 특별하거나 이상화된 자연이 아니라 매우 일상적인 자연이나 도시 풍경이 등장한다. 그리고 자연과 풍경이 그 자체로 주제가 되어 나타난다.

<님프와 사티로스>에서 우리는 붓 자국을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는 다만 형체만 있을 뿐 윤곽선도 없다. 그러나 <인상, 해돋이>에서는 그림 전체에 춤추듯 움직인 붓 자국이 남아 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붓이 캔버스 표면과 부딪히고 스칠 때 나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 거기엔 어떤 분명한 형체가 아니라 붓이 움직이며 남긴 선들만이 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그림은 그저 스케치이거나,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색채와 붓질 때문에 인상주의의 그림에선 대체로 형태의 단단함, 입체감, 중량감이 감소한다. 거기에는 가볍고 험란한 색채의 축제가 있으며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세계, 그 순간의 포착만이 있다. 그것은 이념이나 신앙을 통해 본 세계가 아니라, 순간의 인상에 의해 남겨진 세계의 우연한 모습이다.

(나) ‘장소’라고 하면 어떤 공간에 있는 형태를 가진 땅덩어리나 건물 등을 떠올리게 된다. 즉 장소란 구체적이고 독특한 지표면의 일정 구역으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며 인간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표면을 의미한다. 장소는 사람의 경험, 견해와 인식 등 관념적인 의미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사람이 인지한 공간, 특정한 이미지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장소에 대한 경험은 직업,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라도 사람마다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며, 시간이나 사회에 따라 장소 인식이 달라지기도 한다. 개인이나 사회 집단은 장소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장소감을 지니게 된다.

(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라) 교사는 분필을 들고 돌아섰다. 그는 칠판 위에다 ‘퇴비우스의 띠’라고 썼다.

제군이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입학시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주기 바란다. 면에는 안과 겉이 있다. 예를 들자. 종이는 앞뒤 양면을 갖고 지구는 내부와 외부로 갖는다. 평면인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려서 그 양끝을 맞붙이면 역시 안과 겉 양면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꼬아 양끝을 붙이면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즉 한쪽 면만 갖는 곡면이 된다. 이것이 제군이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퇴비우스의 띠이다. 여기서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곡면을 생각해 보자.

교사는 두 손을 교탁 위에 얹었다. 그는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끝으로 내부와 외부가 따로 없는 입체는 없는지 생각해 보자. 내부와 외부로 경계 지을 수 없는 입체, 즉 퇴비우스의 입체를 상상해 보라. 우주는 무한하고 끝이 없어 내부와 외부로 구분할 수 없을 것 같다. 간단한 퇴비우스의 띠에 많은 진리가 숨어 있는 것

이다. 내가 마지막 시간에 왜 피비우스의 띠 이야기를 하는지 제군은 생각해 주리라 믿는다. 나는 제군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 사물을 옳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제 나의 노력이 어떠했나 자신을 테스트해 볼 기회가 온 것 같다.

(마) 역사에서 과거란 현재 이전에 일어난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을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이 편리하다.

인류 생활의 과거에는 수많은 일들, 즉 사실(事實)들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어 간 수많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한 집단, 한 민족의 지난날에도 도저히 셀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들을 총망라한 것이 곧 역사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역이란 그 많은 사실들 중에서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 즉 사실(史實)을 뽑아 모은 것이라고 우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이라고 한 것은 다음에 말하겠지만, 사실(史實)을 뽑아 모으는 일만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들 속에서 사실(史實)만을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성립시키는 1차적인 작업이라면 무엇보다도 그것을 선택해 내는 기준이 문제가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수많은 사실들 속에서 사실(史實)을 가려내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사람과 시대에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 사실(史實)을 뽑아내는 작업은 주로 역사가들의 주관적인 안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옳게 뽑았다는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만 역사 발전의 바른 노정에 합치될 수 있는 역사가로 평가될 수 있으며, 그가 뽑은 사실(史實)이 객관적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 사람의 역사가가 객관적 진실성이 더 높은 사실(史實)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가 가진 역사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쉬운 예를 들면, 조선 시대의 역사가들에게 문익점이 책을 읽은 일이나 글씨를 쓴 일은 흔히 있는 사실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목화씨를 가져온 일만이 사실(史實)로 보였다. 고려 말기에 전래되어 극히 제한된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던 목화를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의생활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조선 시대였으므로, 당시의 역사가들은 문익점의 목화씨 전래를 사실(史實)로 뽑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대단히 적절한 것이어서 오늘날에도 목화씨를 가져온 일은 중요한 사실(史實)로 뽑히고 있다.

시대에 따라 사실(史實)을 가려내는 기준은 언제나 그 당시의 현재적 요구,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삼는다.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어느 한 시대의 현재적 요구에 의하여 선택된 사실(史實)은 영원히 사실(史實)로서의 가치를 가지느냐, 혹은 다음 시대의 현재적 요구 때문에 앞 시대의 선택된 사실(史實)이 그 가치를 잃고 하나의 사실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바) 모자 장수는 자기가 정말 흥미를 갖는 문제, 즉 모자와 머리의 문제에 대하여 내

게 얘기를 꺼냈다.

“크기로 말하면, 참 놀랄 만큼 차이가 심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들과 거래가 많습시다만, 그분들의 머리 치수는 놀랄 지경입니다. 손님도 놀라실 겁니다. 아마 그분들의 머리가 그렇게 커지는 것은 생각할 일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기 모자는 ○○ 씨(유명한 변호사의 이름을 대면서)의 것인데요, 엄청나게 큰 머립니다 — 7인치 반 — 이것이 그분의 치수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7인치 이상 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데요.”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머리 크기는 직업에 따르는 듯합니다. 제가 전에 항구 도시에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선장님들 일을 해 드렸지요. 보통이 아닙니다. 그분들 머리는, 아마 그건 그분들의 걱정과 근심 때문이겠지요. 조수(潮水)며, 바람이며, 빙산이며, 기타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자니…….”

내가 지금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우리는 제각기 자기 특유의 창을 통해 인생을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본 것은 모자의 치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경우였다. 그는 존스가 7인치 2분의 1을 쓴다 해서 그를 존경하고, 스미스는 6인치 4분의 3밖에 안된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한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제한된 직업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재단사는 여러분의 의복을 훑어보고서 그 재봉 솜씨와 광택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을 측정한다. 그 사람에게 있어 여러분은 다만 옷걸이에 불과하고, 여러분의 가치는 입고 있는 의복에 정비례한다. 화공(靴工)은 여러분의 신발을 보고서, 그 신발의 질과 손질한 상태에 따라 여러분의 지식이나 사회적 경제적 정도를 가늠한다. 만일 여러분이 굵이 닳아서 낮아진 신을 신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자가 아무리 번들거려도 여러분에 대한 그의 평가는 변하지 않는다. 모자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평가 기준의 일부도 되지 않는다.

[문제 1] ‘대상의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 (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성된 글로 서술하시오. [40점, 530~550자]

[문제 2] 제시문 (라)와 (마)의 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바)에 나타난 ‘모자 장수의 시각’을 비판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40점, 530~55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A회사는 부품을 생산하여 100개씩 한 상자에 넣어 상자 단위로 판매하고 있다. B회사는 A회사의 부품을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B회사는 A회사의 부품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품질 검사를 고려하고 있다.

- 검사 1: 한 상자에서 임의로 10개를 뽑아서 그 부품들을 모두 검사한다.
- 검사 2: 한 상자에서 임의로 20개를 뽑아서 그 부품들을 모두 검사한다.

B회사는 검사를 실시하여 적정 불량률 이하이면 해당 상자를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A회사에 반품한다. 적정 불량률은 B회사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값이다.

부품의 품질 검사는 정확하고, 과거의 자료에 의하면 A회사의 부품 상자의 불량률이 적정 불량률 이하일 확률은 0.8이다. 한 개의 부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20만원이며, 검사의 결과로 인한 B회사의 한 상자당 손익은 다음의 표와 같다.

		상자당 부품의 실제 불량률	
		적정 불량률 이하	적정 불량률 초과
검사의 결과	적정 불량률 이하	1,000만 원 수익	2,000만 원 손실
	적정 불량률 초과	500만 원 손실	500만 원 수익

또한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검사 1에서 적정 불량률 이하인 상자를 적정 불량률 초과로 판정할 확률은 0.2이고, 그 반대 경우의 확률은 0.3이다. 검사 2에서 적정 불량률 이하인 상자를 적정 불량률 초과로 판정할 확률은 0.1, 그 반대 경우의 확률은 0.4이다.

		검사 1		검사 2	
		상자당 부품의 실제 불량률		상자당 부품의 실제 불량률	
		적정 불량률 이하	적정 불량률 초과	적정 불량률 이하	적정 불량률 초과
검사의 결과	적정 불량률 이하	0.8	0.3	0.9	0.4
	적정 불량률 초과	0.2	0.7	0.1	0.6

[문제 3] B회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검사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